

진로 전문가 28인이 밝혀낸
잘못된 진로 정보 12가지

찾았다 진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이 진로가 불안해요.”

“도대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는지...”

“진로는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데...”

커가는 아이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합니다.

점수와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업을 얻게 되고

그래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없는 살림에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정작 아이 미래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진로가 대세라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지

아이 진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책자 20만 부의 제작 및 발송비에 사용될 44,236,000원은

이 운동에 뜻을 같이한 시민 105명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원자 강혜영 곽은미 곽은주 구정서 권용식 권인하 권진숙 김경은 김관순 김동은 김명진 김명혜 김병주 김선미 김성천 김순재 김승현 김신덕 김영경 김용진 김원미 김주환 김진명 김태은 김태훈 김행지 나용균 노형재 류광일 마수덕 박복남 박수진 박은선 박준호 박준희 배정수 백선숙 백수연 변경미 서명신 서미경 서은지 손성현 송덕기 송인수 신경식 신동혁 신진복 신현승 심미림 안병화 안상현 양혜영 왕은미 원지호 윤경희 윤다옥 윤선하 윤성욱 윤소영 윤지희 윤홍실 윤용 이경희 이기훈 이남혁 이동환 이미연 이세창 이수진 이영순 이정화 이주리 이준영 이현욱 임미령 임미숙 임정수 전선영 전재영 전재중 정양수 정원일 정일권 정일선 정철성 정혜림 조주희 조혜영 지미영 지호선 최규창 최영주 최지영 탁경국 태원우 허선희 허현 홍두준 홍영철 홍지연 황수진 무명 서울중로지역 바자회수익금

지식 후원 안준근(기획 자문), 김경래(출판 편집 자문), 성한경(교정)

1판 1쇄 인쇄(20만 부): 2014. 3. 2

※이 책자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찾았다 진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요즘 진로에 대한 정보가 넘칩니다.
정부와 교육청과 학교,
심지어 사교육 시장도 진로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접하면
정확하지 않거나 불안만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 정보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지만
어디까지가 옳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진로 지도와 관련한 이런 혼란이 염려스러웠던 우리는,
바른 관점과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지난 4년간 수십 차례 조사와 연구,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는 다양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고,
채용 시장의 현재 상황과 미래 추세를 파악하는 등
온 국민을 대신해서 힘겨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로에 대한 핵심적인 진실을 담아
이렇게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진로 관련 불안을 해소하고 참된 진로를 찾는 데
이 책자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이 책자 속에 담긴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진로 정보를 꼼꼼히 따져본

진로 전문가 28인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지원	변호사, 타고난직성찾기국민실천본부 상임대표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수
고원형	아름다운배움 대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성천	경기도 교육연구원 박사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종우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백선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서유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천석	의학박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진로포럼 대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유이분	보리출판사 경영지원 살림꾼 대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이강은	진로코칭센터 교사모임 대표
이미경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이원재	경제평론가
정연순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최영우	비영리단체 모금 컨설팅사 '도움과나눔' 대표



* 기타 익명을 전제로 국내 대기업 인사 채용 담당자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참여 및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진로 정보'를 찾기 위한 토론회와 연구, 강연을 49회 이상 실시했습니다.(2009. 12.~2014. 1.)

▲미래 직업-대학-진로 설계 6회 연속 토론회(2009. 12~2010. 1) ▲행복한 진로학교 8강(2010. 6~7)

▲좋은 일자리, 진로 지도 6회 연속 토론회(2010. 7) ▲행복한 진로학교 8강(2010. 11~12) ▲진로교육의
현실과 미래 5회 연속 토론회(2010. 2~3) ▲행복한 진로학교 8강(2012) ▲행복한 진로학교 8강(2013.

3~4) ▲그 외 수 차례 현장 전문가 간담회

진로에 관한 잘못된 생각 12가지

1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사교육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2

일단 성적을 올려놓아야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지지 않나요?

3

아이 진로를
일찍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미래를 준비시켜줘야
하지 않나요?

4

지금 잘나가는 직업을
목표로 공부하라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5

우리 사회에선 취업할 때
여전히 학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6

서울권 대학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않을까요?

7

안정되고 월급 많은
직장에 가야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8

돈과 안정성 외에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
기준이 달리 있겠어요?

9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는 그래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10

좋은 일자리 기준을
바꾼다 해서 갈 만한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11

아이들이 취직할 때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이
지금과 다를 것 있겠어요?

12

경쟁 사회에서 부모 없이
아이 홀로 살 거란 생각을 하니,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불안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사교육을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사교육에 찌든 사람은 기업도 싫어합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 취업 경쟁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사교육에 매달리면 단기적으로 성적은 유지하더라도 자칫 아이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장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은 기업도 매우 기피합니다. 세계적인 생존경쟁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직원은 기업에 보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교육에 몰두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일자리 자체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의존성만 키우고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기업 기피 대상 1위는 사교육에 찌든 사람.”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기업의 인재 채용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에서 창의적 인재,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서는 회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은 사교육에 찌들어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원 강사들도 학원 발은 33세까지라고 인정.” (김정효(가명), 유명 대입 학원 대입연구소 소장)

학원 강사들끼리는, 사교육으로 길러진 아이들은 유효 기간이 33세까지라고 말합니다. 사교육으로 요행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지라도, 그 아이들은 직장 속에서 직면하게 될 수많은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학원에 의존해서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의존심이 취업 이후엔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중학생은 한 반에 고작 1.7명뿐.” (정원일, 전직 학원 강사)

소위 ‘좋은’ 직업을 위해 ‘SKY, 서성한경외시’ 같은 대학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들과 중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관계를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그 대학들 정원이 2~3만 명 정도인데, 그 대학들에 진학 가능한 아이들은 통계적으로 중학교 한 반당 1.7명이었어요. 즉, 한두 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루저’인 셈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어요. 좋은 직업 기준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지요.

“월급 많고 안정적이면 좋은 직업이라고요?”

삼성경제연구소, 경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좋은 직업decent job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명목 임금 기준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산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한국경영자총협회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치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일자리
KDI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출처: 김승덕, 허재준, 조준모, 전용일 편저, 《교육과 성장》,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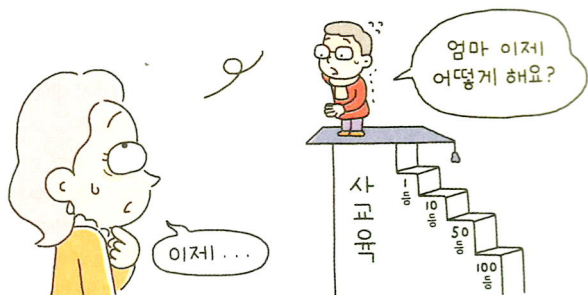
좋은 직업을 하나같이 ‘돈과 안정성’ 기준으로 평가하네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로 일러준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이 한 해 고용하는 신규 인력은 고작 2만 명입니다. 한해 대졸생이 54만 명임을 감안할 때, 우리 자녀들 97%는 태어날 때부터 ‘루저’인 셈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태어날 때부터 국민 대다수를 실패자로 만드는 이 기준은 타당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학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한시직’으로 학원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잘못된 ‘좋은 일자리’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 24쪽 참고)을 가지세요.

일단 성적을 올려놓아야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지지 않나요?



“바른 진로 선택 폭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성적과 등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점수 따기 식 공부에 몰입해서
는 목표한 대학을 가기 어렵습니다. 혹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맞는 학과와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관심과 끌림을 무시하고 점수와
등수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되니까요. 이
렇게 되면, 결국 진로의 기회는 넓어졌을지 몰라도 바른 진로 선택의 폭
은 오히려 좁아지는 셈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그
호기심이 공부를 이끌어 가도록 하면, 직업과 학업 성취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점수 따기 공부로는 자신에게 정말 적합한 진로를 몰라.” (이강은, 진로코칭센터 교사모임 대표)
초등학교 때는 제법 체험활동을 시키던 부모들도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교과 성적표 점수가 낮으면 불안해하며, 진로 탐색을 멈추고 “일단 좋은 성적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로 탐색 시도를 접고 교과 성적에 연연하는 순간, 나중에 그 아이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끌리는 것, 자신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기회는 넓어졌지만, 올바른 선택은 못하는 것이죠.

“하나에 몰입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관리할 것.” (백선숙,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면 그 일에 집중하도록 내버려두십시오. 그 한 가지에 몰입하면 물론 다른 것에 소홀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속에서 진주를 찾으면 아이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현실에 눈을 뜨고 다른 교과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스스로 성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이 두려워 그 몰입을 중단시키면 아이는 자기 적성에 대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 성패가 19세에 결정 나는 건 아니라는 여유 필요.”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부모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 적극적 모험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이의 인생이 19살의 대학 입시 한 번으로 결정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시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 인생의 성패는 어린 시절에 결정 나지 않는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야만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여유가 찾아오고, 그것이 아이를 자신 있게 만듭니다.

“진학에 성공해도 진로 선택에 실패하면 성공 아니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1년 진로 교육 토론회 중



진로 지도는 진학 지도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진학 지도는 인생 전체를 내다보는 진로 설계 속에 자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와 학원은 당장의 상급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 교과 성적 관리 위주의 진학 지도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학에는 성공하지만, 진로 선택에는 실패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커리어넷(career.go.kr), 워크넷(work.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래 직업’,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상담’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jinhak.or.kr) 등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로 상담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아이 진로를 일찍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미래를 준비시켜줘야 하지 않나요?



“일찍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즘 입학사정관제도 등의 영향으로 진로 로드맵을 일찍 그리고 구체적으로 짜주는 흐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진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진로에 모든 것을 걸다가 낭패를 볼 수 있지요. 진로를 탐색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꿈이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끌고 가게 한다는 것이지, 진로를 빨리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입시에 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진로에 지나치게 개입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스펙을 만들어주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들, 학생들 조기 진로 결정 지지하지 마세요.” (이미경,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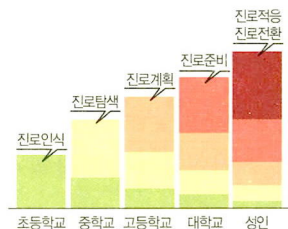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자주 오해합니다. 마치 입학사정관제가 조기에 자녀의 진로를 결정해주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서 그 분야를 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진로 탐색을 위해 그 학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진로가 달라지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한 가지 패로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해.” (최영우, 도움과나눔 대표)

한 가지 패로 인생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업을 일찍 정해놓고 그 직업을 위해서 매진하다 보면 나중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물론 진로를 상상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진로 상상은 어디까지나 학습 의욕을 키워주는 계기일 뿐입니다. 특정 진로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면 나중에 배신을 당합니다. 진로는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뇌 발달 원리상 어릴 때 진로 결정 위험해.” (서유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인간의 뇌는 시기별로 발달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3~6세는 인성을 관장하는 전두엽, 6~12세는 언어와 과학적 사고 발달을 돕는 측두엽과 두정엽, 12~15세엔 감성을 담당하는 후두엽 발달 등 20세 전후를 절정으로 하여 뇌세포 발달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적성은 뇌 발달 단계보다 앞서 발견되거나 키워낼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어떤 분야에 두드러진 관심을 보인다고 하여 진로를 결정해버린다면 또 다른 가능성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로 고민, 어린 시절에 일찍 끝내면 안 돼.”

정연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진로 교육 지도 순서도>

진로 교육의 지도 순서도입니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때는 진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기, 중학교 때는 시행착오를 거처며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 고교 때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해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진로 계획에 너무 일찍 빠져들면 진로 교육의 발달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진로 인식과 탐색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계속 필요하다는 점도 아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가 어릴수록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행복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본 품성(인간성, 풍부한 감성, 좋은 습관 등)을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잘나가는 직업을 목표로 공부하라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지금 유망한 직업, 20년 후 장담 못해요.”

자신에게 맞고 유망하기도 한 직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직업이 지금 잘나간다고 해서 초등 1학년 자녀가 직업을 갖게 될 20년 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지요.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보다 길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수명보다 한결 짧아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생애 전체를 통해 무려 40가지 직종을 선택하며 살 것이라는 예측까지 합니다. 어떤 직업, 어느 직장이 유망한가를 생각하며 그 길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런 변화무쌍한 직업 현실을 내다보고 거기에 요구되는 기본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현재 잘나가는 직종의 위기.”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 현재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는 2016년 2만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사법연수원 출신 고시 합격자 취업률은 2012년 40.9%, 2013년 46.8%에 그치고, 변호사를 월 평균 수입 건수도 2011년 2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머니투데이, 2013. 7. 29)
- 개원 의사의 36%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 금액은 3억 5천79만 원이며, 월 평균 182만 원을 이자로 지출한다. 수입 만족도에선 19.6%만이 만족, 의원 경영이 향후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답변은 7.1%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2012. 4. 20)

“기업의 지속 기간이 사람 수명보다 짧아지는 시대가 되어.”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미국에서 1935년 기업의 평균 수명은 9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30년으로 단축 되더니 2005년에는 15년, 지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은 기업의 지속 기간이 사람의 수명보다 짧아진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 대부분은 이런 달라진 기업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잘나가는 기업과 유망한 직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나, 일생 동안 40개 직종을 선택하며 살 것.” (고병현 성공회대학교 교수)

과거 우리 기성세대는 한번 교육받으면 그것으로 직장을 선택한 후에 직장의 변화 없이 정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고, 취업을 해도 실업과 재취업, 전직 등을 거쳐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한 사람당 15년 후에는 29~40개 직종을 선택하며 살 것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나고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한곳에 머물지 않은 채 어떤 미지 상황에 놓여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근성을 키워주는 것이 진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20년 후에 잘나가는 직업이어야죠.”

매일경제 이코노미, <인기 직업, 한국 직업 변천사>

순위	1960년대	1980년대	2010년대
1	택시 운전사	증권 금융인	태양광전문가
2	자동차 엔지니어	반도체 엔지니어	헬스매니저
3	다방 DJ	야구 선수	성형외과 등
4	은행원	탤런트	전문 경영인
5	교사	드라마 프로듀서	IT 컨설턴트

1960년대엔 택시 운전사, 70년대는 트로트 가수, 90년대는 프로게이머, 2000년대는 공인회계사, 2010년대는 태양광 전문가 등, 인기 직종은 시대마다 변해왔습니다. 지금 잘나가는 직장에 연연하지 말고, 아이가 살아갈 10~20년 후를 내다보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알 수 없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도 잘 헤쳐갈 수 있게 하는 ‘미래 사회 요구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26쪽 참고).
그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주세요.

우리 사회에선 취업할 때 여전히 학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학벌 관행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학벌의 효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 언론 방송사, 공기업 상당수는 채용 때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엔 학벌 중심 관행이 남아 있지만, 학벌보다 그 직업에 맞는 전공 실력을 갖추었는지를 더 중시합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갖게 될 10~20년 후에는 학벌 중시 관행이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적성과 소질에 관계없이 학벌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한 부모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공기업, 서류 전형 단계에서 학력 기입란 없는 경우 많아.” (김성천, 경기도 교육연구원 박사)

공기업 채용 실태 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국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지방대생 30%, 국가유공자 7%, 장애인 2%, 여성 30% 선발이라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국가가 정해진 지침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아예 학력을 기입하는 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주소, 나이, 이름 등만 적고 시험을 본 후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다시 원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한국전력, 서울대 출신보다 지방대 출신 더 채용.” (안상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진로포럼 대표)

한국전력공사의 4년간 채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대 출신이 44명인 반면, 경북대 86명, 부산대 63명, 전남대는 무려 90명의 졸업생이 취업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지방대 출신자들 우대 정책עד다가, 서류 심사에서 학벌을 보지 않는 정책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요. 앞으로 공기업 지방대 취업 할당제 등의 법률이 제정되면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전공이 달라, 서울대생 400명을 탈락시켜.” (L전자 P 인사팀장)

우리 기업에서 신입 사원 채용 공고를 냈더니, 서울대 출신만 5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0명을 제외하고 400명은 탈락시켰습니다. 그들이 탈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공이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명문대생이면 무조건 취업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벌보다는 전공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기업의 SKY 출신 무조건 우대 시대 끝나.”

학점/출신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4.0 이상	10점	9점	8점
3.5~4.0 이상	7점	6점	5점
3.0~3.5 이상	5점	4점	3점

출처: 양종철, 《대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도서출판 갈ınt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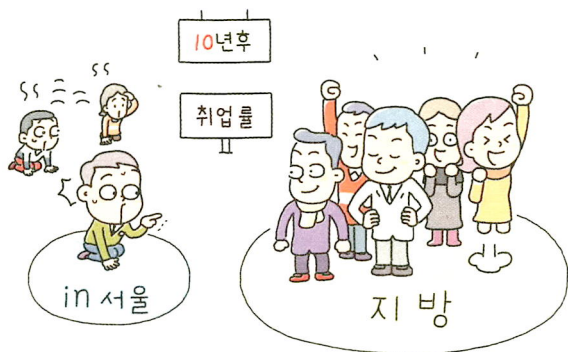
일부 대기업 입사 지원서 서류 심사 기준표입니다. SKY 등 대학은 1등급, 주요 수도권 대학과 일부 지방 국립대학은 2등급, 나머지는 3등급으로 나누어, 출신 학교 등급과 학점을 연관시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출신 대학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점수를 달리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꼭 시정되어야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자료를 보면, 과거처럼 SKY대 출신이면 무조건 채용하는 관행이 많이 열어지고, 학점을 통해 출신 대학 장벽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미 약화되어가고 있는 학벌 중심의 부당한 채용 관행이 더욱 빨리 개선되도록 법률 제정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학벌차별금지법 등 법률 제정 활동 noworry.kr)

서울권 대학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않을까요?



“10년 후 ‘인서울’ 풍조는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에 취직할 때 현재 “문과 분야는 서울권 대학, 이공계 분야는 지방 국립대까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벌을 중시하는 대기업 채용의 현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학벌 차별 채용 관행을 해소하고 지방대 출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학벌차별금지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로 적성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들 100개’를 만드는 시민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10년 내로 학벌로 인재를 채용하는 경향은 뚜렷이 완화될 것이며, 서울권 대학들이 학벌 효과에 안주하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문과는 ‘인서울’ 대학이 대세라는 흐름, 고정불변 아냐.”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현재 대기업 등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문과인 경우 일단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 대체적으로 ‘서울권 대학’에는 들어야 하고, 이공계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지방대에도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소위 ‘인서울’ 현상도 기껏해야 10여 년 전에야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삼성전자 지방 인재 채용, 2012년부터 35% 이상.” (통신사 ‘뉴스1’, 2013.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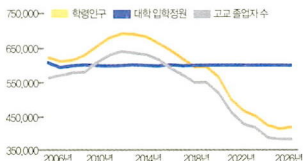
올해 대부분 대기업 채용 방향은 지방대생 채용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징이다. 삼성은 지방대 출신을 35% 이상 채용하기로 했고 LG그룹도 지방대생 우대를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적성검사 및 블라인드 서류 전형 등을 통해 스펙보다 능력과 적극성을 검증하고 있다. 출신 학교 학점 등은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 및 적성검사 성적, 면접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직무능력표준제, 학벌차별금지법 등으로 변화 예상.”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인서울’ 대학 채용 우대 풍조는 지금까지 현실이고 앞으로는 다릅니다. 정치권에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학벌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가리는 ‘국가직무능력표준제’나 기업의 신입 사원 채용 시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법률이 제정되면 ‘인서울’ 채용 풍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10년 후엔 회사가 사람을 찾기 어려워.”

2006년 제5차 국가 고용전략회의 보고서, <대학 입학 정원과 학령 인구, 고졸자 추이>



지금은 일자리가 적어서 대기업들이 마음 놓고 좋은 인재를 골라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도 직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어서 고1 학생이 직장을 선택할 10년 후부터는 회사가 사람을 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즉, 회사와 구직자의 관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처럼 직장을 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은 완화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는 지방대와 서울권 대학 격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녀 전공 능력을 키워줄 학과와 교수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이 곧 시작됩니다.

(noworry.kr)

안정되고 월급 많은 직장에 가야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일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업의 출현과 쇠퇴가 빈번해지는 미래 사회에서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 영역, 공공기업 등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며 질병이 존재하는 한 의료 직업 또한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이나 고소득 같은 ‘외부적 이익’이 행복을 보장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적절한 급여와 대우는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통한 참된 행복은 자기가 전념하는 일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 보람과 기쁨 같은 내적인 성취에서 찾아옵니다. 그런 행복감을 잃으면서까지 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시, 사시 합격했어도 행복하지 않아.” (강지원, 타고난적성찾기국민실천본부 상임대표)

나는 그 어렵다던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글쓰기를 좋아했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곧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진정한 나의 길을 찾지 못했지요. 검사로 일하면서 우연히 비행 청소년의 눈물을 보았고, 그때의 감동이 운명처럼 청소년 운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먼 길을 돌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의식적으로 얻을 수 없어.” (칙센트 미하이, 《몰입》의 저자)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공에 집착할수록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란 것도 의식적으로 얻으려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의 이해보다 더 큰 목표에 헌신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도로 스스로의 마음과 육체를 바쳐 자발적으로 전력투구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크 일에 전념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졸업 후 방송국이나 출판사 등 여러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선택한 직장들이라 재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직장 생활 중에 틈틈이 내가 좋아하는 ‘반크’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중 이 일이야말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계 걱정을 내려놓고 그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퇴직했어요. 저는 ‘반크’ 일을 하면서 무척 행복합니다. 또 먹고사는 걱정도 없습니다.

순위	직업	만족도
1위	사진작가	90%
2위	작가	87%
3위	비행기 조종사	86%
⋮		
169위	의사	46%
170위	모델	31%

* 조사 대상 직업: 총 170개, 직업 만족도 평균: 68%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꼴찌라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의사는 모델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의사가 자기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직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공부 잘해서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은 주로 연구직에 어울립니다. 그런데 의사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직이지요. 연구직 적성에 맞지 않는 직종입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지요. 자기 적성에 따라 만족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돈과 안정성을 더 중시한 나머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돈과 안정성을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자세입니다.

돈과 안정성 외에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 기준이 달리 있겠어요?



“이젠 새로운 기준이 대세입니다.”

돈과 안정성으로 좋은 직업을 판단하는 낡은 관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시험 점수에 맞추어 대학과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남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려는 목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이제 새 기준이 필요합니다.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며, △그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여 보람을 경험하며, △경제적으로 자립 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기준을 만족시키면 다 좋은 직업이고,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행복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기준이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도 최근 이런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과 안정성도 길게 봐야 합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사람은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얻습니다. 아이의 흥미와 소질을 무시하고 돈과 안정성을 주는 일자리를 쫓곤 했지만, 직업 세계가 급변하면서 잘나가던 직업조차 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일로 사회에 공헌할 때 즐겁고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직업인이 경쟁력도 있고 오래갑니다. 돈과 안정성도 길게 봐야 합니다.

“직업에 대한 선진 국가의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직업 선택에서 모든 것이 ‘돈’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사회와는 달리, 선진국은 직업을 통해 이룰 사회적 가치와 자기 적성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물론 먹고살 걱정이 없는 사회니까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구성원들은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관심 속에서 직업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 속에서 하는 일이니 보람도 크고, 그만큼 사회도 좋아지고,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연봉 높은 곳 스카우트 제안 거절, 후회하지 않아.” (고원형, 아름다운배움 대표)

저는 여러 곳의 괜찮은 스카우트 제안을 뿌리치고 지금의 이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변의 걱정과 만류가 많았지만, 이 일은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이고 가슴 뛰는 일이라 늘 행복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제게 가장 중요한 직업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일을 통해 세상이 달라지니 보람과 자부심도 생기고 또 적게 벌지만 결혼 생활 하며 굶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뜻을 따라 살아도 굶지 않고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늘 확신합니다.

“선진국의 일자리 기준, 우리와 다르네!”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의 사무총장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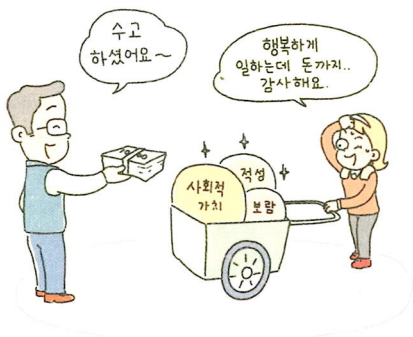
ILO(국제노동기구)는 좋은 직업을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산적 노동’이란,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을 뜻합니다. 이는 임금과 안정성의 관점에서만 직업을 바라보며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만을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 대조적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무시하는 좋은 직업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좋은 일자리의 낮은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는 핵심적인 기준이지만 매우 경시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실천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는 그래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경제적 자립은 뒤따라옵니다.

자녀가 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 머무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사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신의 뜻과 적성을 꺾으면서까지 원치 않는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보람찬 일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는 행복감도 중요하니까요. 이미 조기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불안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 이웃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몰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유익과 경제적 자립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상상력을 펼치며 살아도 절대 안 굶어 죽어.” (박원순, 서울시장,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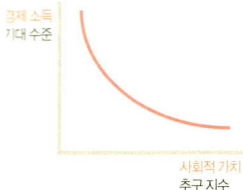
먹고사는 일! 중요합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매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상상력을 펼치며 사는 것이 옳은 줄을 알지만 현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는 젊음이 있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아파트 대신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더라도 삶의 견뎌움을 배워나가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누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와.” (세계적 의약 기업 창업자 조지 메르크 2세)

우리는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수익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다. 아프리카 환자들을 위해 신 약을 개발할 때도 많은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 자체 비용으로 약을 제조하고 나누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켜온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의약품이 환자를 위한 것임을, 그리고 인간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의약품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익 자체는 부수적인 것임을 기억하는 한 이익은 저절로 따라다닙니다.

안정성은 직업 선택의 ‘조건’이 아닌 ‘결과.’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부모들이나 아이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안정성을 너무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정성을 중시하고 직업을 선택할 경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안정성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곳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경우, 머지않아 안정성도 따라옵니다. 즉 안정성은 직업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기대해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경제적 자립 기회 높아져.”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행복한 진로학교 발표 자료>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을 벌어도 부족하게 느끼고 어떤 이는 3천만 원도 풍족하게 느낍니다. 그 차이는 욕망의 내려놓기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면 클수록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은 작아져서, 경제 소득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많이 버는 것이 꼭 풍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사회 기여 욕구가 클수록 점수가 아닌 적성을 추구하며, 경제적 자립의 기대 수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행복하게 자립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봉사의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기준을 바꾼다 해서 갈만한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도 좋은 일자리는 15만 개 이상입니다.”

적성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대기업, 공기업 외에 병원, 학교, 혁신형 중소기업 등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매해 15만 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도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고, 국내에서도 이런 일자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일부 제한된 자리를 둘러싼 과다 경쟁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보이지 않던 수많은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매해 2만 개 아닌 15~19만 개.” (김세중,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사람들은 소위 잘나가는 일자리가 2만 개 정도라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30대 대기업뿐 아니라 행정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매년 신규 정규직 취업자는 11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15만~19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집니다. 무조건 고소득에 안정적인 일자리만 생각하며 불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급격히 팽창해.”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우리나라도 새 일자리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서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3천 개까지 육성하고 10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역시 올해 2,500개 정도까지 확대되리라 전망합니다. 기존 일자리를 통한 고용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런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비영리 부문 채용, GDP의 4~7%인 유럽처럼 확대될 것.” (이원재, 경제평론가)

유럽은 비영리 부문의 경제 활동이 일찍부터 발전해왔어요. 유럽 22개국의 비영리 부문 지출은 GDP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90년대 비영리 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 성장의 40%에 이를 정도예요. 영국은 5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독일은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협동조합의 회원일 정도입니다. 우리 경제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비영리 분야가 아주 보편적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2만 개보다 훨씬 많아.”

2008 취업 통계 자료집, <정규직 취업자 현황>

구분	대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전문대학	11,921	4,387	1,584	17,426	4,862
일반대학	33,020	8,278	3,289	8,732	7,471
대학원	4,013	939	1,483	2,557	2,652
총계	48,955	13,605	6,356	28,715	14,985

· 단위 명

2008년 대졸생의 정규직 취업 현황. 대기업은 4만 8천명, 행정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은 6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전통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도 좋은 일자리는 11만 개이고, 중소기업 중 혁신형 기업 일자리 4만~8만 개까지 포함하면, 총 15만~19만 개에 이릅니다.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일자리 숫자 2만 개만 좋은 일자리로 생각 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인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평소 언론 방송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스크랩하여 아이들과 대화해보세요. ‘잡월드(koreajobworld.or.kr)’ 같은 직업 체험관도 좋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좋은 일자리 통계와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취직할 때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이 지금과 다를 것 없겠어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이젠 기업도 사회적 가치와 윤리 경영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리’와 ‘덕’, ‘소통 능력’이 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적 기업들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 제품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재능’, ‘서로 다른 집단 속에서 소통하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립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가 예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이미 그런 추세로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벌과 사교육에 의존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로는 미래 일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젠 점수가 아닌 ‘매너’가 경쟁력.”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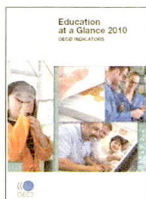
최근 경영보고서에서 세계 CEO 80% 이상이 직장 내 성공을 위한 최고의 덕목으로 ‘매너’를 꼽았어요. 매너는 결국 ‘관계’의 다른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에요. 함께 사는 삶이 멋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기업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은 소통, 공감하는 능력.” (제러미 러프킨, 《공감의 시대》 저자)

21세기 자본주의는 나의 이익은 곧 상대방의 손해를 통해 얻어진다는 식의 고전경제학과는 다른 이야기다. 앞으로 사회는 폐쇄성에서 투명성으로, 승패에서 윈윈으로, 경쟁에서 협업으로, 석유 패권주의에서 에너지 협력관계로,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은 타인 감정을 공감하는 ‘공감적 관계 기술 능력’이다.

“스토리 만들고 공감하는 능력 등 지금 준비해야.” (김중우,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회 회장)

대표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크게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과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꼽고, 이것을 다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등 6가지 세부 능력으로 나누었어요. 수능 점수 따기가 중요한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무시되기 쉽지만, 그의 지적대로 미래엔 직업적 성공과 개인의 만족을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미래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따로 있어요.”

2010년 OECD 보고서, 《미래 사회 인재 핵심 역량》

2010년 OECD 보고서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으로 ‘지적인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에서 소통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객관식 지식의 암기 능력, 성적과 경제력 배경이 같은 학생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소통하는 고교 체제, 사교육에 대한 의존심 같은, 지금 많은 부모들이 매달리는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미래 능력을 부모들 스스로가 가정에서 길러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성적과 부모 재산·학력이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있어서 소통하는 힘을 키울 수 없는 지금의 낡은 고교 체제를 바꾸기 위해 부모들이 나서야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부모 없이 아이 홀로 살 거란 생각을 하니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불안해요.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부모들 마음속에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아이 홀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공포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에 의지하려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진로 지도는 자녀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자기 삶에서 살아간다면, 자녀는 그것을 보며 부모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적다고 해도, 오히려 그 결핍이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러했듯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스스로 타고난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 간섭하면 부모의 개입이 꼭 필요한 때 놓쳐.”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부모들은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과 인간관계 등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아이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 아이는 부모로부터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작 아이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는 소외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간섭을 줄이며, 자녀의 행동을 고치려 들지 말고,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싸움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에요.

두 딸의 선택을 존중하니 좋아졌어요.” (유이분, 브리출판사 경영지원 살림꾼 대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땃줄을 끊음과 동시에 너와 나는 남이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먹고 보살피는 건 하나의 과정일 뿐,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대신 내가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부모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일한다는 게 어떤 건가는 보여주겠다.’ 그렇게 결정했지요. 그 대신 애들이 뭐를 한다고 했을 때 막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딸이 지금 엄마를 존경하며 건강하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부모의 부족함이 자녀의 장애가 되지는 않아.”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부모의 허물이나 허약한 가정 배경으로 인해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자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허물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좌절하고 진로가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허물조차 재료 삼아 자녀들은 제대로 된 진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예요. 우리 부모들 자신이 그래왔잖아요. 그것을 믿고, 부모들은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허락할까, 잘할 수 있는 일을 시킬까?”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행복한 진로 학교 강좌>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않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유형 1	유형 3
잘할 수 없는 일	유형 2	유형 4

진로 지도할 때 유형 1은 선택하고 유형 4는 피하면 됩니다. 다만, 유형 2와 3이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유형 3이 안전할 수도 있지만, 유형 2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그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확

인해서 유형 1로 갈 수도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녀는 미련 없이 다른 길을 찾아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 선택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힘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아이와 부모 자신에게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진로 전문가 28인이 권합니다.

이젠 이렇게 하세요!

1

학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학원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잘못된 '좋은 일자리'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세요.

2

커리어넷(career.go.kr), 워크넷(work.go.kr), 각 시도교육청별 진로 상담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래 직업',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상담'을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3

아이가 어릴수록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행복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본 품성(풍부한 감성, 좋은 습관 등)을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금 유망한 직업도 20년 후에는 장담 못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도 잘 헤쳐갈 수 있게 하는 '미래 사회 요구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주세요.

5

학벌 관행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학벌 중심의 부당한 채용 관행이 더욱 빨리 개선되도록 법률 제정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6

10년 후에는 지방대와 서울권 대학 격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녀 전공 능력을 키워줄 학과와 교수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

돈과 안정성을 더 중시한 나머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돈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8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는 핵심적인 기준이지만 매우 경시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실천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9

사회 기여 욕구가 클수록 점수가 아닌 적성을 추구하며, 경제적 자립의 기대
수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행복하게 자립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와 봉사의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그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합니다.

10

평소 언론 방송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스크랩하여 아이들과
대화해보세요. '잡월드(koreajobworld.or.kr)' 같은 직업 체험관도 좋습니다.

11

'지식 활용 능력, 소통, 자립 능력' 등 미래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학교와 부모가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적과 부모 재산·학력이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있어서
소통하는 힘을 키울 수 없는 지금의 낡은 고교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12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힘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아이와 부모 자신에게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2008년 6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생겼습니다.

“사교육 걱정, 힘들어요.
하지만 뽕족한 수가 없잖아요.”
온 국민들이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절망하고
각자 살 길을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일어섰습니다.

역사가 짧은 운동이지만,
지금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운동에 함께 참여하세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 ▶ ‘아깝다 학원비! 700만 국민보급운동’이 전개돼요.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꿈꾸는 가정’ 문패 달기도 있어요.
- ▶ 사교육 걱정을 이기는 ‘진로학교’ 등 각종 강좌가 매 학기 열려요.
- ▶ 영어 및 수학 사교육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요.
- ▶ 사교육이 불지 않는 선진국형 행복한 성적표를 보내요.
- ▶ 정부 사교육 정책, 학교 내신, 학원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해요.
- ▶ 사교육 걱정 없는 고교·대학 체제 및 입학 제도를 설계해요.
- ▶ ‘채용 시장 학벌 차별’ 등을 바로잡는 운동을 전개해요.
- ▶ ‘카페와 지역 모임 나눔’ 운동을 통해 함께 만나요.
- ▶ 국내 최초로 사교육 걱정을 줄이는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해요.

※정(후원)회원 가입 방법 ▶ noworry.kr (공식 카페) 접속

지역 모임에 참여하세요. 사교육 걱정이 없어져요!

대한민국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 문제로 이웃과 대화하다가 더욱 불안해지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 마세요.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지역 모임이 조직되어, 수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이 사교육 걱정을 이기는 행복한 동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으로 불안하다면, 용기를 내서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에 당신의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강원 강릉 심척 속초 홍인영 hiy0000@hanmail.net

강원 원주 인제 정선 영월

강원은 bless-73@hanmail.net

경기 구리 남양주 하남 가평

문해경 himoon1385@hanmail.net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

북한권 otherlove0808@hanmail.net

경기 군포 의왕 조주희 jooheejo@gmail.com

경기 김포 지미영 red_zerg21@hanmail.net

경기 분당 구본남 bohnnam@naver.com

경기 수원 화성 이지선 love8388@naver.com

경기 수원 영통 윤혜영 yunamad@daum.net

경기 오산 평택 장전수 mrfog@naver.com

경기 안양 박부흥 bbodong99@lycos.co.kr

경기 파주 구두희 00092@hanmail.net

경남 김해 신현승 xhwjdtls@hanmail.net

경남 창원 김현옥 tomboychichi@hanmail.net

대전 전재영 fish94@hanmail.net

서울 노원 최승연 rosataeyi@hanmail.net

서울 강서 전선영 junjebi@hanmail.net

서울 중랑 광진 성동

북선속 paikss100@hanmail.net

서울 동작 조혜영 gbleu21@hanmail.net

서울 은평 서대문 마포

박혜성 hunismom@hanmail.net

서울 송파 서초 강남 채송아 ddalkibus@gmail.com

서울 종로 김성수 longman7140@hotmail.com

인천

이준영 damool264@hanmail.net

이정필 renewal-12@hanmail.net

울산

서미경 1cala@hanmail.net

이미자 l2231262@hanmail.net

전남 광주 정철성 makebrightjung@gmail.com

전북 김재근 dasigaip@hanmail.net

충북 청주 충주 조윤주 netkids1231@hanmail.net

충남 서산 최영주 cc3327@korea.kr

■ 지역 모임 문의 최승연 간사 02-797-4044

이렇게 좋은 모임,
나만 알기 아깝다...



강의 문의 이 소책자 정보 내용을 더욱 상세히 해설하는 강의를 원하시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 문의를 하세요. 우리 단체 공동대표들 및 100인 강사들이 방문해서 강의를 합니다. 신청 : noworry.kr 전화 : 02-797-4044~6

소책자 구입 이 소책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추가 제작 등을 위해 이 소책자 40부 당 2만 원(우편료 포함, 1권당 500원)을 받습니다. www.noworry.kr 에서 신청하세요.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801-324738 (예금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명쾌하고 후련했어요!”

“성경처럼 모셔두고 수시로 읽으려고요.”

이 소책자를 접하고 밑줄 짝짝 그으면서 막 읽었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영어나 학원 불안증은 적은 편이라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진로 문제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번 책자는 성경처럼 모셔두고 수시로 읽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김진희, 학부모)

“진로 상담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진로 지도 교사로서 평상시 진로에 대한 바른 정보가 부족해서 늘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 소책자를 접하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런 책도 있었단가! 단순한 진로 정보를 넘어 채용 시장 상황까지 꼼꼼히 살펴본 진로 정보는 이 책자가 처음이었습니다. 학생들 진로 상담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김선구, 중학교 교사)

“명쾌한 정보에 참 후련했어요.”

진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접한 책 중에서 가장 근사했어요. 정말 궁금한 것, 알아야 할 것을 쑥쑥 뽑아 만드셨어요. 묘하게도, 읽으면서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진로 컨설팅 사교육도 유행하면서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잖아요. 참 다행이에요. (남궁선, 학부모)

“이젠 옆집 엄마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노워리 상담넷’이 있으니까요!

(찾았다 진로)를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노워리 카페(noworry.kr)에 들어오세요. 28,000명의 부모들과 시민들이 모여 걱정을 나누고 위로합니다. 사교육 고민과 관련해 온라인 상담소도 운영합니다. 50명의 상담 멘토들이 기다립니다. 이제 옆집 엄마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노워리 카페’, ‘노워리 상담넷’이 있으니까요! www.noworry.kr (인터넷 검색창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을 쳐주세요)

이 소책자 외에도 사교육의 오해와 진실을 알리는 《아깝다 학원비!》, 영어 사교육 실상을 알리는 《영어 헛고생》 소책자도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담 아같은 이름의 단행본도 출간해서 서점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www.noworry.kr | T. 02-797-4044~6 F. 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